복식문화연구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제18권 제4호, (2010. 8), pp.670~686

중·노년층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모 관리 효과에 관한 연구
- 피부 관리 효과를 중심으로 -

임 희 경†·최 인 려*
목원대학교 생의약화장품학과,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Effect of Skin Management which is based on the Lifestyle of Middleaged and Old Age Women

Hee-Kyung Lim†and In-ryu Choi*
Division of Biomedicinal Chemistry & Cosmetics, Mokwon University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0. 4. 7. 접수일 : 2010. 8. 13. 수정완료일 : 2010. 8. 16. 게재확정일)

Abstract

This study aims at clarifying the action types of skin management which is base on age, marriage or not, family composition, school career, and income which are demographic variables centering around the lifestyle of middleaged and old age women. As for study method, this researcher executed literature study and questionnaire on adult women over 45 years old who dwell in Seoul and Kyounggi area. Survey period was Mar. 1, 2009 to Jun. 30. And, after distributing 1,000 copies of questionnaire, this researcher used effective 869 copies of questionnaire for analysis out of collected questionnaire, 895 copies. As for analysis method, this researcher executed DUNCAN test with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manin component analysis, K-average, multitude analysis, dispersion analysis and post verification by using SPSS 12.0 program. As for demographic feature for middle aged and old age women, 50~59 years old women were most by age as 302 persons(33.7%). It is emerging that spouse existence is very high as 674 persons(75.3%) in the answer for marriage or not, couple family to live with unmarried children is very high as 483 persons(54.0%) in the answer for family composition, leaving high school in mid-course or gradation of high school are very high as 356 persons(39.8%) in the answer for school career, income from 3 million Won under 4 million won is very high as 260 persons(29.1%) in the answer for monthly income of family members, and women to use under 50 thousand won is very high as 510 persons(57.0%) in the monthly average expense to be used for skin management.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 extracted total 5 factors (economic saving, displaying consumption, confidence inclination, centering around family, and leisure application) by executing factor analysis with 12 question items of lifestyle so as to grasp factor structure of lifestyle of middleaged and old age people, and whole explanatory variable quantity was 70.9%. This researcher named as economic saving type, diplaying consumption style, and type centering around leisure and family, after making multitude analysis about 5 factors analyzed by measuring lifestyle feature. As the result of structure analysis of

† 교신저자 E-mail : haidylim@naver.com

question items of skin management(pursuit of skin management, life of skin management, and inclination of skin management), this researcher extracted total 3 factors, and whole explanatory variable quantity was 71.30%. Thus, it emerged that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Key words: lifestyles(라이프스타일), skincare(피부 관리), the elderly citizens(장년층).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결혼관, 출산율, 가족 구성, 거주 형태, 경제력, 직업 구조 및 지역적 인구 구성도 등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노년층의 인구 증가 및 고령화는 빠른 진행으로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 비율이 2000년은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3%의 고령 사회에 이어서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1]. 현재의 중년층이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20년 후에는 노령 인구가 지금의 2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한 삶과 소득 증가가 중년과 노년에게 여유를 제공하며, 비전을 제시하고 동시에 사회 각 분야의 중년과 노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백화점 및 많은 기업에서의 중년과 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각종 매체의 활성화는 중년 이후 여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중・노년층의 은퇴 후 사회활동은 사회경제적 조건을 포괄하는 개인들의 의식적 표현으로, 생활을 위한 활동으로서 노동 과정이 아니라 여가 및 소비 활동과 관련되는 자기표현과 관련 된다[2]. 고학력과 고소득의 중・노년층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소비 구매층으로 양적・질적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자녀의 출가 등으로 자유로운 삶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노후 생활을 하려는 연령층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년과 노년들은 실제 연령보다 젊어 보이기 위해 노력하며 젊은이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는 연소화(down-aging)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현상으로[3] 외모 관리를 한다. 또한, 현재의 중・노년층은 단순히 정년퇴직과 함께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노년층의 여성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피부 관리 또한 라이프스타일의 질적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노년층 인구 증가로 인해 학계와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관련 연구[4~8]와 그 외 외모 관리에 대한 연구[9~13] 등이 있다. 그러나 외모 관련 연구는 주 대상이 젊은층[14,15]

1)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 [온라인게시판] (2006년 11월 [2009년 6월 15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kostat.go.kr
2) 데이비드 채니, *라이프스타일*, 김정로 역 (서울: 일신사, 2004), pp. 11-18.
3) 대홍도큐, 김재훈, "실버마케팅-고령화 사회도래의 마케팅적 의미," [온라인게시판] (2005년 5_6월 [2009년 8월 10일 검색]), p.7. ;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daehong.com
4) 추태귀, "노년층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의복 행동"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5) 홍경희, "여성 노년층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인지된 연령에 따른 의복쇼핑행동"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6) 심정희,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패션제품의 이미지선호도," *디자인학 연구* 20권 1호 (2007), pp. 143-154.
7) 한성지, 양리나, 김문숙, "50·60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0권 5호 (2002), pp. 504-517.
8) 김진구, 서미아, 이유경, 이선희,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에 따른 의복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3권 1호 (1996), pp. 57-74.
9) 연경희, "중년여성의 화장 후 외모 만족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0) 류현혜, "노년 여성의 개인적·사회적 자아의식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11) 김정원, 전선영, "국내 실버여성의 외모중요 인식도와 만족도," *국제뷰티산업학회지* 2권 1호 (2007), pp. 22-30.

이거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화장품[16,17]이나 신체 관련 체형 연구 등이 대부분의 연구임을 감안할 때 고령 사회의 진입을 앞둔 현재 중・노년층 여성을 중심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모 관리 효과 중 피부 관리와 연관된 연구[18,19]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는 본 연구는 중・노년층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모 관리 효과 중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연령, 결혼 여부, 가족 구성, 학력, 수입에 따른 피부 관리 행동 유형을 밝히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중・노년층의 정의

중년은 40~64세 사이의 시기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성숙해지며, 일생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고 활동적인 시기이다.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 수행, 가정생활 관리, 경제적으로 독립의 필요성과 사회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기로 인생의 목표를 성취해 가는 인생의 절정기이다. 일반적으로 '불혹'이라 불리는 40대는 정신적으로 최전성기인 완숙 단계에 이르는 노력과 정진의 결과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인생의 수확기이자 사회적으로도 지도적 위치에 오르는 성취기이며, '지천명'이라 불리는 50대는 현대사의 굵직한 모든 역사적 과정을 겪으며 살아온 세대이다[20].

Levinson은 중년기를 40~60세로 보고 중년 전환기(40~45세), 중년 입문기(45~50세), 50대 전환기(50~55세), 중년의 절정기(55~60세)로 구분하며, 노년기를 노년 전환기(60~65세), 노년기(65세 이상)로 구분하였다[21]. 최인영은 중년기를 40~59세로 보며, 중년 전기(40~49세)와 중년 후기(50~59세)로 구분하였다[22]. 미네소타 주 의학협회는 노인을 '늙었다고 느낀다', '배울 만큼 배웠다고 느낀다', '이 나이에 그깟 일은 뭐하려고 해라고 말하곤 한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고 느낀다', '젊은이들의 활동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좋다', '좋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 한다' 등과 같이 정의하였다[23].

국내의 경우, 고령자 또는 노년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상이하다. 노인복지법[24](제28조, 33조2)은 주로 60세 또는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에 대한 복지도모 대상으로 규정하며, 국민연금법(제61조)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를 60세가 된 때로 보고 있다. 현재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0세이나, 그 지급 연령이 높아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은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

12) 안나영,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태도와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3) 박혜란, "중년 여성의 체중 및 피부관리에 대한 의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4) 김경희, "한·중·일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피부 관리·화장행동·구매 행동 비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5) 김현정,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화장품 구매행동 및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6) 박선민, "중년여성의 화장 전·후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국제뷰티산업학회지* 2권 1호 (2007), pp. 15-21.
17) 이화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화장이미지와 자의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8) 김정원, "실버여성의 라이프스타일과 외모관리행동 분석," *국제뷰티산업학회지* 3권 2호 (2008), pp. 73-80.
19) 김정원, 정선영, "국내 실버여성의 외모중요 인식도와 만족도," *국제뷰티산업학회지* 2권 1호 (2007), pp. 23-30.
20) 김희재, *한국사회변화와 세대별 문화코드* (부산: 신지서원, 2004), pp. 185-267
21) 정옥분, 김동배, 정순화, 손화희,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8), pp. 149-165.
22) 최인영, "한국 중년세대의 가치관과 성공적인 노화 인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 13.
23) Van Crouch, *Winning 101: Insight and Motivation to Help You Achieve* (Tulsa, Oklahoma: Honor Books, 2002), pp. 47-86.
24) 노인복지법, 법률 제9386호(의료법) [온라인게시판] (2009년 1월 30일 [2010년 3월 20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FFF5486257414DCF82B84DA9887B8580|0

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25]. 따라서 본 연구자도 중년과 노년층의 정의를 세대 간의 살아온 환경에 따라 다르기에 중년층을 40~64세로 보며, 중년 전기(40~52세)와 중년 후기(53~64세)로 구분하고, 노년층을 생애 과정(life-course) 상의 노년기인 직장에서의 은퇴 시기 및 자녀들로부터 독립하는 6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2. 우리나라 중·노년층의 연령 추이

UN의 정의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인 사회를 말하며, 고령 사회(aged society)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로 분류 된다[26].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출생율의 감소로 중년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노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연령별 전국 추계 인구가 보여주는 중·노년층의 인구 분포를 보면 한국 사회도 오는 2020년에는 이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표 1〉의 자료와 같이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은 1970년에 65.57세였던 것이 2000년에 79.60세로 2007년 현재는 82.73세로 증가하고 있다. 즉,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소비계층인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 마케팅으로 중·노년 여성의 지각연령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특성과 차림 의복 성향 및 화장품, 모발 관리 등 제품의 선호 색상과 외모 만족도에 대한 기대 효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의 중년이 노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중년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지출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3. 중·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 개념

라이프스타일은 학문 분야나 연구학자의 관심과 접근 방식에 따라 다양하다. 처음으로 마케팅 분야에서 라이프스타일 개념을 사용한 William[27]은 총체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로 사회 전체 또는 사회 일부 계층의 삶이 반영된 차별적이고 특징적인 생활양식이라고 정의하며, 문화와 사회, 그룹 및 개인적인 기대 가치, 생활양식과 가치, 구입 결정, 소비자의 시장 반응으로 생활양식 계층구조를 제시했다.

〈표 1〉 연령별(전국) 추계인구 (단위: 명)

연령별 (전국)	2009 추계인구	2010 추계인구	2020 추계인구	2030 추계인구	2040 추계인구	2050 추계인구
45~49세	4,238,746	4,191,988	4,180,791	3,619,510	3,282,339	2,363,378
50~59세	6,351,452	6,712,916	8,165,780	7,793,234	6,561,864	6,260,387
60~69세	3,920,205	3,998,043	6,292,254	7,716,801	7,426,624	6,295,823
70~79세	2,485,887	2,593,841	3,337,542	5,438,322	6,779,427	6,645,299
80~89세	797,234	853,054	1,544,989	2,105,524	3,692,766	4,732,523
90~94세	70,874	78,391	185,637	357,255	521,561	1,045,220
95세 이상	19,089	20,233	52,181	118,061	197,356	352,477
계	17,883,487	18,448,466	23,759,174	27,148,707	28,461,937	27,695,107

출처: 통계청, 연령별(전국) 추계인구. 2009.

25) 통계청, "2009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온라인게시판] (2009년 10월 1일 [2009년 10월 15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kostat.go.kr
26) Idid., 2009 고령자 통계.
27) Lazer William, Life Style Concepys and Marketing, Stephen Greyser, ed, *Toward Scientitic Marketing*,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ociation (1963), pp. 140-151.

2004년도 전국 노인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에서 노인의 여가 활동 및 사회단체 참여 실태 조사[28]에 따르면 가장 즐거움을 느꼈던 활동은 가족과 함께(29.8%), 친구·친지·동호인 모임 등의 사교 활동(21.7%), TV 시청·라디오 청취·신문 보기(9.5%), 여행(5.8%), 종교 활동(5.1%), 바둑·장기·화투 등(3.0%), 자녀 및 손 자녀 양육(3.0%) 등의 순이며,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스포츠 활동(4.95%)과 여행(9.0%)이, 여자 노인의 경우 가족과 함께 하는 일(31.8%)과 종교 활동(7.2%)으로 여자 노인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년층 여성의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2004년도 전국 노인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 〈표 2〉의 노인의 사회단체 유형별 참가율 및 참가 희망의 결과에 따르면, 중·노년층의 종교 및 문화 활동, 운동, 사교, 정치 단체의 사회활동 참여 및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에서 여성은 종교 단체 활동 부분에서, 남성은 사교 단체 활동 부분에서 연령, 가구 소득, 가구 형태와 상관없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중·노년층 라이프스타일의 유형 분류 및 고찰

중·노년층의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분류는 사회경제적 차원과 심리 묘사적 차원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측면의 연구자인 French와 Fox[29]

〈표 2〉 노인의 사회 단체 유형별 참가율 및 참가 희망

특성		종교 단체	문화 활동 단체	운동 단체	사교 단체	정치 단체	대상자 수
전체		47.9	0.9	3.9	33.5	2.1	3,029
성별	남자	32.3	1.7	7.9	50.5	4.4	1,171
	여자	57.7	0.4	1.3	26.1	0.5	1,858
연령	65~69세	47.1	1.2	5.8	52.8	2.9	1,215
	70~74세	49.1	0.9	3.8	32.9	1.9	902
	75세 이상	47.8	0.7	1.4	15.1	1.1	912
가구 소득	50만 원 미만	45.9	0.3	1.8	16.6	0.6	899
	50~100만 원 미만	46.9	0.6	3.2	38.4	1.9	782
	100~150만 원 미만	44.8	1.9	4.8	43.4	3.5	376
	150~200만 원 미만	48.6	0.4	4.3	47.1	2.4	255
	200~300만 원 미만	50.4	2.1	5.1	46.3	2.7	334
	300만 원 이상	54.2	1.3	8.1	49.3	3.7	382
가구 형태	노인 독신	53.7	0.4	1.2	18.7	1.0	667
	노인 부부	41.9	1.5	6.2	45.9	3.0	184
	자녀 동거	48.5	0.8	3.4	35.8	1.4	1,099
	기타	59.6	0.6	3.4	3.0	3.9	179
1998년		52.7	0.7	2.9	28.8		2,218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온라인게시판] (2005년 1월 [2009년 5월 14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kihasa.re.kr/html/jsp/

29) W. A. French and R. Fox, “Segmenting the Senior Citizen Market,”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Vol. 2 (1985), pp. 61-74.

는 생활에서 은퇴를 즐기는 정도, 의존성·불안정성의 결정 변수를 가지고 노년에 적응력이 높은 집단으로 생활재구성형(reorganizers)과 집중형(focused), 건강과 노화에 민감한 집단으로 타인의존형(succorances seekers)과 자기억제형(constricted), 비활동적이고 자존심리가 낮은 집단으로 냉담형(apathetic)과 분노형(angary) 및 자기비판형(self-blaming), 독립적이며 외모에 관심과 노화에 두려움이 많은 집착형(holding-on), 그리고 삶을 자립적으로 생각하는 독립형(disengaged)으로 분류하여 특성을 밝혔다.

William과 Wirth[30]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가족중심형(familism), 부부중심형(couplehood), 일지향형(world of work), 충족형(living fully), 고립형(living alone), 무관심형(inimal involvement) 6개의 기본적 라이프스타일을 밝히고 구성비를 제시하였다. Bernard[31]는 일상생활 및 결혼생활을 통해 다양하게 표현되는 사상과 가치 체계를 라이프스타일로 제시하며, Bartos[32]는 50세 이상의 소비 집단을 풍족활동형(active affluents), 가정생활형(homemaker), 활동적은퇴형(active retireds), 생계곤란형(dis-advantaged), 건강악화형(in poor health), 기타(other) 6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그 중 풍족활동형, 가정생활형, 활동적은퇴형은 노년시장의 주요 고객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Gollub과 Javitz[33]는 은퇴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 측정을 위해 건강, 독립성, 외향성, 방종함, 변화에 대한 적응력의 결정 변수를 이용하여 성취형(attainers), 개선형(adapters), 탐구형(explorers), 실용형(pragmatists), 보호형(preservers), 희생형(martyrs)으로 분류하였다.

심리·묘사적인 측면으로 Plummer[34]는 라이프스타일을 개인의 시간 활동, 생활환경 속에서 중요한 관심도, 생활환경에 대한 의견을 주요 생활양식으로 분류하여 정의하며,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된 항목의 구성 내용은, 활동(activities; 직업, 취미, 사회적 사건, 휴가, 오락, 클럽 회원, 지역사회, 쇼핑 및 스포츠)과 관심(interest; 가족, 가정, 직업, 지역사회, 오락, 유행, 식품, 대중매체, 성취) 및 의견(opinion; 자기 자신, 사회 문제, 정치, 기업, 경제, 교육, 제품, 미래, 문화)을 제시하고, AIO(activities, interests and opinions) 평가로 라이프스타일의 심리적인 유사물을 나타낸다.

Gutman과 Mills[35]는 AIO와 자아개념 및 단골 구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가지고 선도자, 추종자, 독립형, 중립형, 비몰입형, 거부형, 부정형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추태귀[36]는 노년층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경제적 절약형, 여가 활용성, 가족지향성, 과시적 소비성, 자신감 지향성, 보수적 독립성의 6개 요인의 정도에 따라 보수형, 독립형, 쾌락추구형, 적극형, 물질추구형의 5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의복 행동의 분석 결과, 쾌락추구형은 상징성, 흥미성, 심미성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은 반면, 관리성은 가장 낮게 나타내었다. 적극형은 관리성이 5개 집단 중 가장 높았으며, 물질추구형은 모든 의복 행동 변인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독립형은 안락성과 정숙성을 제외한 모든 의복 행동 변인에 관심이 낮아 라이프스타일과 마찬가지로 의생활에도 무관심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홍경희[37]는 노년층 여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측정 문항을 재정, 건강과 안녕, 사회와 가족, 가정, 정보, 여가, 일상생활, 노년층을 위한 기업 활동, 판촉 활동, 신상품에 대한 태도, 제품이나 서비스에

30) R. H. William and C. Wirth, *Lives through the Years* (New York: Atherton Press, 1965), pp. 25-32.
31) J. Bernard, "Note on Changing Life Styl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Vol. 37 No. 3 (1975), pp. 582-594.
32) R. Bartos, "Over 49: The Invisible Consumer Market," *Harvard Business* Vol. 58 No. 1 (1980), pp. 140-148.
33) J. Gollub and H. Javitz, "Six Ways to Age," *American Demographics* Vol. 11 (1989), pp. 28-57.
34) J. T. Plummer,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Life Style Segmentation," *Journal of Marketing* Vol. 38 Issue 1 (1974), pp. 33-37.
35) J. Gutman and K. M. Mills, "Fashion Life Styles, Self-concept, Shopping Orientation, and Store Patronage: An Integrative Analysis," *Journal of Retailing* Vol. 58 No. 2 (1982), pp. 65-75.
36) 추태귀, op. cit., pp. 44-51.
37) 홍경희, op. cit., pp. 114-119.

대한 불만족, 첨단기기 및 구매 시 지불 방법으로 분류하고, 각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인지된 연령이 의복 쇼핑 관련 행동인 의복 선택 기준, 정보원 활용, 의복비, 의복 구매 시 동반자 및 구매 장소와 점포 관련 행동인 판매원 속성 중요도와 점포 평가 기준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정원과 전선영[38]은 실버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체 부위별 중요 정도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와 신체 중요도와 신체 만족도간의 차이에서 50~70세 실버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피부가 외모 유지를 위한 중요 부위로 중간 순위와 신체 만족도에서 피부는 평균값이 높은 순위에 속한다고 하였다.

전정원[39] 새로운 소비의 주체 세력인 '뉴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변수와 외식 소비 태도, 외식 소비 행동에 대해 규명하고, 그 관계성과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5. 외모 관리 효과

외모 관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미의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외모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까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과의 외모나 얼굴 모양과 표정은 대화의 내용이나 몸짓 그리고 행위 이상으로 그 사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도구로[40], 외모 관리의 수단은 화장과 피부 관리, 헤어스타일, 의복 등으로 자신의 미적 욕구를 표현하며 발전하여 왔다. Kasier[41]는 "외모는 전체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행동, 표정, 자세도 중요하다. 가장 직접적으로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체와 의복"이라고 하였다. Cash와 Pruzinsky[42]는 외모를 신체적 매력, 몸무게, 키, 얼굴의 특징, 가꾸는 요소 등과 같은 신체 외모의 변수들로 세분하여 인지하려고 했으며, 이 세분된 변수들을 분석하면서 사람들의 사회적 태도와 속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Wright[43]는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신체 언어 즉 몸짓, 자세, 얼굴 표정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내부의 심리적 상태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모란, 외형적인 형상과 내면적인 요인이 합쳐진 전반적인 모습이며, 관리란 사람의 몸 따위를 보살피는 것으로[44],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외부 모습을 관리하는 행동들로 차림 의복, 피부 관리, 모발 관리 및 얼굴에 화장하는 것을 말한다. 중・노년층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모 관리 만족은 남을 먼저 의식하거나 사회적인 지위 또는 예의식 및 자기 만족으로 젊어 보이고 싶어 하는 자신을 꾸미는데서 오는 것으로 보여 진다.

6. 피부 관리

오늘날 현대인들은 웰빙시대에서 로하스(LOHAS)[45] 시대로 옮겨가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중・

38) 김정원, 전선영, op. cit., pp. 23-30.
39) 전정원, "뉴실버 세대의 심리적 변수에 따른 외식소비 행동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p. 95-103.
40) 大坊郁夫, "顔と魅力," *日本纖維製品消費科學誌* 36券 11號 (1995), pp. 661-666.
41) S.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New York: Fairchild Books, 1996), pp. 539-593.
42) T. F. Cash and T. Pruzinsky, *Body Image,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0), pp. 337-347.
43) B. A. Wright, *Physical Disability: A Psychosocial Approach* (2nd ed.), (New York: Harper & Row, 1983), pp. 52-73.
44) 신효정, "현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p. 6-9.
45) 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좇는 생활양식으로 2000년 미국의 내추럴마케팅연구소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건강·환경·자기발전과 지속가능한 삶에 가치를 둔 사람들로 자신의 정신적·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후대에 물려줄 미래의 소비 기반의 지속가능성까지 중시한다. 나아가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유형이나 이를 좇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

노년층의 여성들은 자신의 피부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며 노화 과정을 더디게 하는데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노화 과정을 더디게 하는데 사회적 관심 증가로 발달된 과학기술로 우리 몸의 노화 과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46]. 피부 관리는 피부가 지닌 모든 기능을 가능한 완전하게 유지시켜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피부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과정이다.

피부는 인체의 장기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외모 관리에 있어 건강한 피부 상태의 척도로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구분된다. 중・노년층의 피부 특징으로 표피의 교체 속도가 70대가 되면 20대보다 30~50% 정도의 감소가 일어난다[47]. 또한, 연령이 65세 이상 되면 인체의 피부가 얇아져 외부 손상에도 쉽게 반응하는 것은 진피의 두께가 대략 20% 정도 감소되기 때문이다[48]. 노년기의 피하조직은 부위에 따라 얼굴, 손등, 정강이의 피하지방층이 감소하고, 여성은 허리, 남성은 복부의 지방이 나이에 따라 증가 한다[49].

인체의 피부 노화는 내인적 피부 노화와 외인적 피부 노화로 구분된다. 내인적 피부 노화는 시간 경과에 의해 나타난다. 외인적 피부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자외선 노출과 흡연, 음주, 유전, 호르몬의 균형 일반적인 건강 등의 관련된 원인들의 조절 여하에 따라 피부 노화의 진행을 감소시킬 수 있다[50]. 일상생활에서 자외선으로부터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피부는 자외선의 조사에 따라 노화가 촉진되며, 피부병 및 피부암 유발에 영향을 미치며, 피부 노화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안면부 노화의 80%는 태양광선 노출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1]. 이것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흡연자들이 본인의 나이보다 얼굴 주름이 많이 발생하여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52]. 피부 건강은 개인의 건강관리와 생활습관에 따라 피부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 젊음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얼굴 및 신체의 피부 관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는 것에 있으며, 건강한 피부의 조건으로는 피부 표면에 적당한 수분이 있고 매끈하며 부드럽고 탄력과 윤기, 광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부 관리는 자신의 피부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부에 관한 지식을 쌓으므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마사지, 스트레칭 등과 같은 근육 이완으로 해소하고, 꾸준한 자기 관리의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7. 선행 연구

김정원과 전선영[53]은 50~70세 실버 여성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와 신체 중요도와 신체 만족도의 차이에서 외모 관리를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97명(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젊어 보이기 위해서 75명(28.4%), 나이가 있으니 예의상 63명(23.9%), 예뻐 보이기 위해서 19명(7.2%), 기타 7명(2.7%), 남들이 하니까 3명(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모 유지를 위한

46) Leslie Baumann, "코스메틱 피부과학: 원리 및 임상" 김석민, 박기범, 배영재, 신현주, 여운철, 이미경, 임성빈, 임이석, 최성우, 한승경, 홍경태, 황선영, 홍란희 역 (2004). *코스메틱 피부과학* (서울: 정담미디어), p. 29.
47) M. Yaar and B. A. *Gilchrest, Aging of the Skin. Fitzpatrick's Dermatology in General Medicine*, 5th ed, (New York: McGraw-Hill, 1999), p. 1697.
48) N. Orentreich and V. J. Selmanowitz, "Levels in Biological Functions with Aging." *Transaction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 11 No. 31 (1969), pp. 992-1012.
49) Leslie Baumann, op. cit., p. 35.
50) Leslie Baumann, op. cit., p. 29.
51) J. Uitto, "Understanding Premature Skin Aging,"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 337 No. 20 (1997), pp. 1463-1465.
52) M. Demierre, D. Brooks, H. Koh and A. Geller, "Public Knowledge, Awareness, and Perceptions of the Association between Skin Aging and Smoking,"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Vol. 41 Issue 1 (1999), pp. 27-30.
53) 김정원, 정선영, op. cit., p. 30.

중요 부위 평균값으로 외모 유지를 위한 중요 부위를 그 중요도별로 신체 부위를 그룹에서는 피부가 제 3 중요 부위 그룹에 속했으며, 평균값이 높은 순으로 신체 만족도별로 신체 부위를 그룹화에서는 제 1 그룹은 얼굴, 머리카락, 피부, 등으로 연구되었다.

류현혜와 유태순[54]은 노년 여성의 사회적 자아의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외모 관리 행동 6개 하위 영역인 체중, 체형 관리, 피부 관리, 화장 행동, 헤어 관리, 미용 성형, 의복 행동을 더욱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인 자아의식이 높은 집단의 노년 여성들이 낮은 집단에 비해 체중, 체형 관리는 물론 피부 관리, 화장 행동, 미용 성형, 의복 행동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도 관리한다고 하였다.

이화순[55]은 60~80세 연령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피부 상태는 건성보다는 중성이라 대답한 경우 더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화장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의 화장에 대한 견해와 피부 상태 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김연진[56]은 중년 여성의 피부 건강 관리 지식, 태도 및 교육 요구도 조사에서 피부 건강 관리에 대한 실천은 인식, 관심 등의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피부 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요구도의 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중·노년층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모 관리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 종교 장소(교회, 성당, 절), 주부 및 노인대학, 지역 내 문화원 등의 중·노년층의 다중 이용 장소(미용실, 식당, 피부 관리실)에서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중·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에 따른 변인 측정을 위한 항목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추태귀[57]가 재구성한 선행 논문의 측정 요인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중·노년층의 외모 관리 효과를 위한 항목은 이화순[58]이 재구성한 선행 논문 측정 요인의 일부를 응용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측정 항목은 선행 연구자의 분석 결과, 요인별 문항에서 요인 부하량이 많은 것을 추출하여 측정 도구인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중·노년층의 인구통계학적 척도는 객관식으로 문답하는 명목 척도로, 라이프스타일의 유형 변인, 외모 관리 효과를 위한 피부 관리의 효과 요인은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3. 연구 기간

2009년 3월 1일부터 15일 동안 40세 이상 여성 8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80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고, 본 조사 기간은 2009년 3월 28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총 1,000부를 배부하여 895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불완전한 표본을 제외하고 869부를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 결혼 상태, 가족 구성, 학력, 경제력 등의 명목척도로 9항목을 측정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의 유형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경제적 절약, 여가 활용, 가족 중심, 과시적 소비, 자신감 지향 등의 등간척도로 13항목의 측정 요인을 구성하였다.

4. 자료 분석

중·노년층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에 따른

54) 류현혜, 유태순, "노년여성의 자아의식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 *한국복식학회지* 57호 9권 (2007), pp. 97-109.
55) 이화순, "노인의 화장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한국미용학회지* 3권 1호 (1997), p. 178.
56) 김연진, "중년여성의 피부건강관리 지식, 태도 및 교육 요구도 조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 43-44.
57) 추태귀, op. cit., pp. 39-81.
58) 이화순, op. cit., pp. 107-119.

외모 관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의 분석 방법은 SPSS 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른 통계적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중·노년층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에 따른 외모 관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 도구의 요인별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신뢰도 계수가 0.5 이상인 요인 문항만 본 조사용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항목별 요인 분석을 하였으며, 적절한 요인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들은 아이겐 값 1과 요인적재 값 0.4를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군집분석은 임의 집단수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집단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인 값을 이용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집단을 연령별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5. 용어 정의

1) 중년

중년의 연령은 40~60세의 나이로[59] 보나, 본 연구에서는 풍요한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구비한 시기로서,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자기의 경험과 능력을 통합하는 생의 절정기로 중년기를 연령은 40~64세의 나이로 정하였으며, 외모 및 치장에 일정 부분 지출이 가능한 층이라 할 수 있다.

2) 노년

통계 및 공공행정의 편의를 위해 대부분 60세나 65세 이상의 연령층을 노년기로 규정하고 있으나[60],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를 65세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자신의 체형이나 건강을 위해 자기 관리적 차원의 건강 유지 및 외모나 의복 등의 색채에 관심을 갖고 일정 부분의 지출이 가능한 층이라 할 수 있다.

3) 라이프스타일

개인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개인의 생활 양식, 생활 태도, 미래 설계적 인생관, 통일성과 일관성을 말하며[61], 일상생활 및 결혼생활을 통하여 표출되는 사고방식과 가치 체계로서[62],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4) 외모 관리

외모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으로 정의 된다[63]. 시각적으로 부각되는 신체의 생김새부터 화장, 헤어스타일, 의복 등,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이는 전체적인 모습을 자신이 기대하는 자신의 신체와 이상적인 신체 모습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복, 체중 조절, 화장, 성형 수술, 피부 관리 등의 행동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64].

Ⅳ. 결과 및 논의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노년층 여성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징으로는 연령대별로는 50~59세까지가 302명(33.7%)으로 가장 많았으며, 80세 이상은 46명(5.1%)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는 배우자 생존이 674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에서 7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혼이 28명(3.1%), 배우자와 별거가 23명(2.6%), 기타가 1명(0.1%)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 구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미혼 자녀와 함께 사는 부부 가족이 483명(54.0%)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자녀와 따로 부부만 사는 부부세대가 167명(18.7%),

59)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No. 20 (서울: 한국브리태니커, 1993), p. 44.
60) Ibid., No. 3 pp. 640-641.
61) A. Adler, *The Science of Living, Anchor Book* (New York: Doule Day & Co, 1969), pp. 38-47.
62) Jessie Bernard, "Note on Changing Life Styles, 1970-1974,"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37 No. 3 (1975), pp. 582-593.
63) *표준 국어 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2000), p. 1861.
64) S.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1997), pp. 28-40.

혼자 사는 응답자가 111명(12.4%),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도 124명(13.9%)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에 대한 응답자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이 356명(39.8%), 전문대 이상이 251명(28.0%)으로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전체의 67.8%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성들도 고학력 시대를 나타내 주고 있다. 반면, 고령자의 경우 무 학력자도 20명(2.2%)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보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이 260명(2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피부 관리에 사용하는 비용은 5만원 미만이 510명(57.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노년층 여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869)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
연령	40~49세	179(20.6)
	50~59세	295(33.9)
	60~69세	243(28.0)
	70~79세	106(12.2)
	80세 이상	46(5.3)
결혼 여부	미혼	27(3.1)
	배우자 생존	657(75.6)
	배우자와 사별	163(18.8)
	배우자와 별거	22(2.5)
가족 구성	미혼 자녀와 함께 산다	468(53.9)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산다	118(13.6)
	자녀와 따로 배우자와 산다	164(18.9)
	혼자 산다	109(12.5)
	기타	10(1.2)
학력	무학	20(2.3)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	112(12.9)
	중학교 중퇴 및 졸업	142(16.3)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350(40.3)
	전문대 이상	245(28.2)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10(1.2)
	100~200만 원 미만	72(8.3)
	200~300만 원 미만	199(22.9)
	300~400만 원 미만	260(29.9)
	400~500만 원 미만	191(22.0)
	500만 원 이상	137(15.8)
월 평균 피부 관리 비용	5만 원 미만	500(57.5)
	5~10만 원 미만	168(19.3)
	10~15만 원 미만	60(6.9)
	10~20만 원 미만	26(3.0)
	20만 원 이상	27(3.1)
	기타	88(10.1)

(R). 역코딩 문항, ( ) 누적설명 변량.

2. 중·노년층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의 요인분석

본 연구는 중·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12개의 라이프스타일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고,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한 후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을 시켜 요인 부하량을 구하였다. 그리고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로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라이프스타일 문항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 총 5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전체 설명 변량은 70.9%였다.

요인 1은 '나는 가사일을 직접하여 가계비를 절약 한다', '내 물건은 내가 좋은 것을 저렴하게 사야한다', '나는 쇼핑하기 전에 구입할 물품 목록을 적는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고유치 2.995%, 설명 변량 24.9%로 '경제적 절약'으로 명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0.673로 나타났다.

요인 2는 '나는 되도록 유명 상표 제품을 구입하려고 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새로운 상품을 먼저 구입 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고유치 1.611%, 설명 변량 13.5%로 '과시적 소비'로 명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0.671로 나타났다.

요인 3은 '나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나는 남보다 잘하는 것이 없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고유치 1.297%, 설명 변량 11.8%로 '자신감 지향'로 명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0.641로 나타났다.

요인 4는 '남편이나 자녀를 통해 성취 욕구를 만

〈표 4〉 중・노년층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변수명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	설명 변량 (%)	Cronbach' α
경제적 절약	나는 가사일을 직접하여 가계비를 절약한다.	0.844	2.995	24.9	0.673
	내 물건(의복, 화장품 등)은 내가 좋은 것을 저렴하게 사야 한다.	0.782			
	나는 쇼핑하기 전에 구입할 물품 목록을 적는다.	0.658			
과시적 소비	나는 되도록 유명 상표 제품을 구입하려고 한다.	0.855	1.611	13.5 (38.4)	0.671
	나는 다른 사람보다 새로운 상품을 먼저 구입한다.	0.773			
자신감 지향	나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0.816	1.297	11.8 (50.2)	0.641
	나는 남보다 잘하는 것이 없다.(R)	0.857			
가족 중심	남편이나 자녀를 통해 성취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0.794	1.133	10.4 (60.6)	0.670
	나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녀들을 우선한다.	0.852			
여가 활용	나는 건강을 위해 산책 등 운동을 한다.	0.709	1.115	10.3 (70.9)	0.603
	나는 취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0.629			
	나는 모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0.775			

(R). 역코딩 문항, ( ) 누적설명 변량

족 시킬 수 있다', '나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녀들을 우선 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고유치 1.133%, 설명 변량 10.4%로 '가족 중심'으로 명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0.670로 나타났다.

요인 5는 '나는 건강을 위해 산책 등 운동을 한다', '나는 취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는 모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고유치 1.115%, 설명 변량 10.3%로 '여가 활용'로 명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0.603로 나타났다. 이런한 분석 결과는 추태귀[65]는 여가 활용성, 경제적 절약성, 과시적 소비성, 가족지향성, 자신감 지향성, 보수적 독립성으로 6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여가 활용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왔으나 이는 조사 대상의 연령층이 50~60세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중・노년층 여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특성 및 명칭

중・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및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측정하여 분석한 5개 요인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K-평균 군집화 방법을 통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개의 군집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군집 1은 가사일과 양질의 물품 구입을 직접 하며, 장을 보기 전 필요한 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충동구매를 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절약하는 등의 '경제적 절약'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높으며, 여가 활용, 가족 지향, 과시적 소비 및 자신감 지향에서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적거나 취미나 운동을 할 여유가 없고, 가족과 단절되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심리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집단으로 보여 진다. 이 집단을 '경제 절약형'으로 명명하였다. 표본 수는 263명이다.

군집 2는 유명한 제품 구입을 좋아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신상품을 구매하는 등에서 과시적 소비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절약에서는 가장 낮아 경제적인 면에서는 비교적 풍요롭게 살아가며 명품에 대한 관심도를 보인다. 반면, 여가 활동과 자신감지

65) 추태귀, op. cit., pp. 80-81.

〈표 5〉 라이프스타일 군집에 대한 분산 결과

라이프스타일 요인	군집 1(N=263)	군집 2(N=321)	군집 3(N=285)	*F*
경제적 절약	4.08(0.863) a	3.31(0.778) b	3.95(0.788) b	90.629***
여가 활용	1.97(1.044) c	2.34(0.856) b	3.37(0.845) a	445.747***
가족 지향	2.51(0.843) c	3.13(0.905) b	3.75(0.765) a	294.271***
과시적 소비	2.60(0.688) c	3.77(0.963) a	3.41(0.972) b	216.216***
자신감 지향	2.60(0.843) c	2.82(0.798) b	3.22(0.672) a	134.560***

***p<0.001, 알파벳 소문자(a, b, c)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분류된 집단을 나타냄.

향에서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 소비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태도로 보여 진다. 이 집단을 '과시적 소비형'으로 명명하였다. 표본 수는 321명이다.

군집 3은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있으며,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집단이다. 배우자나 자녀의 성장과 발전에 만족을 느끼고 자기 관리의 운동이나 취미생활에 적극적이고, 소속 모임이나 사회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넘치고 소속 집단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과 삶에 대한 의욕이 넘치고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여 진다. 이 집단을 '여가 및 가족 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표본 수는 285명이다.

이러한 분석한 결과 신뢰도는 여가 활용, 가족 중심, 과시적 소비, 자신감 지향, 경제적 절약성 순으로 나타났다.

4. 피부 관리 효과에 대한 요인분석

중·노년층의 외모 관리 효과 중 피부 관리 효과에 대한 요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10개의 피부 관리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고,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한 후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을 시켜 요인 부하량을 구하였다. 그리고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로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요인분석 결과, 총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전체 설명 변량은 71.30%였다. 피부 관리 문항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총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전체 설명 변량은 71.30%였다.

〈표 6〉 피부 관리 효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변수명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	설명 변량 (%)	Cronbach' α
피부 관리 추구	피부 관리를 하면 걸음걸이가 활발해진다.	0.829	4.623	46.228	0.911
	피부 관리를 하면 목소리의 톤이 밝아진다.	0.862			
	피부 관리를 하면 자신이 상냥하게 보인다.	0.796			
	피부 관리를 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0.844			
	피부 관리를 하면 매력적으로 보인다.	0.801			
	피부 관리를 하면 의욕이 생긴다.	0.732			
피부 관리 생활	피부 관리를 안했을 때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다.	0.837	1.280	13.408 (59.636)	0.702
	피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파 보인다고 생각한다.	0.858			
피부 관리 지향	유행하는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다.	0.820	1.166	11.664 (71.3)	0.654
	피부 관리를 하는 것이 여성의 기본적인 예의이다.	0.818			

( ) 누적설명 변량.

요인 1은 '피부 관리를 하면 걸음걸이가 활발해지고 목소리의 톤이 밝아지며 자신이 상냥하게 보인다', '자신감이 생기고 매력적으로 보이며 의욕이 생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고유치 4.623%, 설명 변량 46.228%로 '피부 관리 추구'로 명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0.911로 나타났다.

요인 2는 '피부 관리를 안했을 때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으며 아파 보인다고 생각 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고유치 1.280%, 설명 변량 13.408%로 '피부 관리 생활'로 명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0.702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유행하는 피부 손질에 관심이 많으며 피부 관리를 하는 것이 여성의 기본적인 예의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고유치 1.166%, 설명 변량 11.664%로 '피부 관리 지향'으로 명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0.654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적 자아의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외모 관리 행동을 더욱 추구하는 류현혜와 유태순[66]의 연구 결과와 노화된 피부일수록 피부 관리를 위해 기초화장을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이화순[67]의 연구결과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있다.

5. 중・노년층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피부 관리의 차이

중・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피부 관리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으로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 중・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피부 관리 추구'(F=30.792, p=0.000), '피부 관리 생활'(F=18.589, p=0.000) 및 '피부 관리 지향'(F=21.455, p=0.000)은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중・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피부 관리 추구'(F=30.792, p=0.000), '피부 관리 생활'(F=18.589, p=0.000) 및 '피부 관리 지향'(F=21.455, p=0.000)은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 관리 추구'는 여가 및 가족 중심형이 경제 절약형 및 과시적 소비형보다 높았다. 정기적인 피부 관리를 통해 자신감을 얻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보다 자기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여가생활을 추구하는 집단에서 현저하였다. 과시적 소비형은 자기만족보다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경제적 절약형 집단은 피부 관리에 무관심하고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젊게 생활하고자 하는 중・노년층 여성들의 피부 관리는 연령과 무관하게 자신감을 부여한다고 판단된다.

'피부 관리 생활'은 여가 및 가족 중심형이 경제 절약형 및 과시적 소비형보다 높았다. 여가 및 가족 중심 집단은 전문 피부 관리실에서나 개인적으로 건강한 피부를 갖기 위해 꾸준한 피부 관리를 하며 지친 피부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절약형은 피부 관리를 위해 제품 구매나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과시적 소비형 집단은 차림 의복 생활형에서도 낮아 이 집단에 속한 여성들이 자신의 만족보다는 타인의 시선 때문에 소비와 외모 관리를 하

〈표 7〉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피부 관리의 차이

구분	경제적 절약형 (N=263)	과시적 소비형 (N=321)	여가 및 가족 중심형 (N=285)	F
피부 관리 추구	3.216(0.666) c	3.409(0.682) b	3.664(0.622) a	30.792***
피부 관리 생활	2.790(0.831) c	2.579(0.852) b	3.040(0.825) a	18.589***
피부 관리 지향	3.110(0.890) b	3.211(0.851) b	3.453(0.786) a	21.455***

***p<0.001, 알파벳 소문자(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결과로 분류된 집단을 나타냄.

66) 류현혜, 유태순, op. cit., pp. 97-109.
67) 이화순, op. cit., pp. 25-30.

는 것으로 보여 진다.

'피부 관리 지향'은 여가 및 가족 중심형 집단이 과시적 소비형 및 경제 절약형보다 높았다. 여가 및 가족 중심형 집단은 평소 생활 이후에 자기 관리 차원의 피부 관리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경제 절약형 집단은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를 받기도 하지만 피부 관리용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지속적인 피부 관리보다는 최신 유행에 따라 피부 관리를 위해 값비싼 제품이나 광고매체로 알려진 제품이나 또는 구전으로 선호하는 제품들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처럼 피부 관리는 중·노년층 여성에 있어 피부 관리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강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노년 여성이 피부 관리를 더 추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류현혜[6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40대 이상의 중·노년층 여성의 연령, 결혼 상태, 가족 구성, 학력, 경제력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고, 피부 관리 효과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중·노년층 여성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징으로는 연령대별로는 50~59세까지가 302명(3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는 배우자 생존이 674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에서 7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미혼 자녀와 함께 사는 부부 가족이 483명(54.0%)으로 대부분이었으며, 학력에 대한 응답자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전체의 67.8%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성들도 고학력 시대를 나타내 주고 있다. 월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보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이 260명(2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피부 관리에 사용하는 비용은 5만 원 미만이 510명(57.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의 요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12개의 라이프스타일 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 요인들은 경제적 절약, 과시적 소비, 자신감 지향, 가족 중심, 여가 활용으로 명명하였다.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5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 요인들은 경제적 절약형, 과시적 소비형, 여가 및 가족 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경제적 절약형은 실제 생활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적거나 취미나 운동을 할 여유가 없고, 가족과 단절되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심리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집단으로 보여 진다. 과시적 소비형은 명품이나 브랜드 제품 구입을 좋아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신상품을 구매하는 등 과시적 소비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여가 및 가족 중심형은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있으며,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집단으로 보여 진다.

중·노년층의 외모 관리 효과 중 피부 관리 효과에 대해 10개의 피부 관리 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피부 관리 추구, 피부 관리 생활, 피부 관리 지향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전체 설명 변량은 71.30%였다. '피부 관리 추구'는 여가 및 가족 중심형이 경제 절약형 및 과시적 소비형보다 높았다. '피부 관리 생활'은 여가 및 가족 중심형이 경제 절약형 및 과시적 소비형보다 높았다. '피부 관리 지향'은 여가 및 가족 중심형 집단이 과시적 소비형 및 경제 절약형보다 높았다.

다음과 같은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 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피부 관리는 '여가 및 가족 중심형과 과시적 소비생활형'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평소의 생활에서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 피부 관리에 관심이 높으며, 동시에 자기만족을 추구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은 산책로나 운동을 하는 스포츠 센터를 마케팅 장소로 활용하고 적극적인 취미 활동을 하므로 문화 센터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월 평균 피부 관리에 사용하는 비용 5만 원 미만이 510명(57.0%)이므로 저가의 피부 관리실이나 셀프 피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피부 관리사의 상주로 셀프용 피부 관리실도 필요하

68) 류현혜, op. cit., pp. 97-109.

리라 사료된다. 월 평균 5만 원 미만의 피부 관리 비용을 사용하는(510명) 연령층을 보면 60~69세가 159명, 50~59세가 148명, 40~49세가 105명, 70~79세가 73명, 80세 이상이 25명으로 중년과 노년의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50~69세 집단 중심의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즉, 나이가 들수록 피부 관리의 목적이 '피부 건강'과 '젊음'의 유지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경희 (2002). "한·중·일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피부 관리·화장 행동·구매 행동 비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연진 (2002). "중년 여성의 피부 건강 관리 지식, 태도 및 교육 요구도 조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원 (2008). "실버 여성의 라이프스타일과 외모 관리 행동 분석." *국제뷰티산업학회지* 3권 2호.

김정원, 정선영 (2007). "국내 실버 여성의 외모중요 인식도와 만족도." *국제뷰티산업학회지* 2권 1호.

김진구, 서미아, 이유경, 이선희 (1996).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에 따른 의복 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3권 1호.

김현정 (2003).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화장품 구매행동 및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재 (2004). *한국사회변화와 세대별 문화코드*. 부산: 신지서원.

노인복지법 (2009년 1월 30일 [2010년 3월 20일 검색]). "법률 제9386호(의료법)" [온라인게시판];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lawnb.com

대홍도큐 (2005년 5_6월 [2009년 8월 10일 검색]). "실버마케팅-고령화 사회도래의 마케팅적 의미" [온라인게시판];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daehong.com

데이비드 채니 (2004). *라이프스타일*. (김정로 역). 서울: 일신사.

류현혜 (2006). "노인여성의 외모 관리 행동 분석." *국제뷰티산업학회지* 1권 2호.

류현혜, 유태순 (2007). "노년 여성의 자아의식과 외모 관리 행동과의 관계." *한국복식학회지* 57권 9호.

박선민 (2007). "중년여성의 화장 전·후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국제뷰티산업학회지* 2권 1호.

박혜란 (2004). "중년 여성의 체중 및 피부 관리에 대한 의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1993). 서울: 브리태니커.

신효정 (2002). "현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심정희 (2007).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패션제품의 이미지선호도." *디자인학 연구* 20권 1호.

안나영 (2007).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태도와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화순 (1997). "노인의 화장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한국미용학회지* 3권 1호.

이화순 (200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화장이미지와 자의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정원 (2007). "뉴실버 세대의 심리적 변수에 따른 외식소비 행동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옥분, 김동배, 정순화, 손화희 (2008).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최인영 (2007). "한국 중년세대의 가치관과 성공적인 노화 인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추태귀 (1994). "노년층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의복 행동."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통계청(2006년 11월 [2009년 6월 15일 검색]). "인구주택 총 조사" [온라인게시판];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kostat.go.kr

통계청(2009년 10월 1일 [2009년 10월 15일 검색]). "2009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온라인게시판];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kostat.go.kr

표준 국어 대사전 (2000). 서울: 두산동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1월 [2009년 5월 14일 검색]). "2004년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 [온라인게시판];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kihasa.re.kr/html/jsp/

한성지, 양리나, 김문숙 (2002). "50·60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0권 5호.

홍경희 (2008). "여성 노년층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인지된 연령에 따른 의복쇼핑행동."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dler, A. (1969). *The Science of Living, Anchor Book.* New York: Doule Day & Co.

Aiken, L. R. (1998). *Human Development in Adulthood.* New York: Plenum Press.

Atchiley, R. C. (1988).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u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5th ed.).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Bartos, R. (1980). "Over 49: The Invisible Consumer Market." *Harvard Business* Vol. 58, No. 1.

Bee, H. (1988). *Life-span Development.* (2nd ed.). New York: Addison-Wesley.

Cash, T, F and T. Pruzinsky (1990). *Body Image,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Demierre, M., D. Brooks, H. Koh and A. Geller (1999). "Public Knowledge, Awareness, and Perceptions of the Association between Skin Aging and Smoking."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Vol. 41, Issue 1.

French, W. A. and R. Fox (1985). "Segmenting the Senior Citizen Market."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Vol. 2.

Gollub, J. and H. Javitz (1989). "Six Ways to Age." *American Demographics* Vol. 11.

Gutman, J. and K. M. Mills (1982). "Fashion Life Styles, Self-concept, Shopping Orientation, and Store Patronage: An Integrative Analysis." *Journal of Retailing* Vol. 58, No. 2.

Jessie Bernard (1975). "Note on Changing Life Styles, 1970-1974."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37, No. 3

Joel Gerson (1979). *Milady's Standard Textbook for Professional Estheticians.* United States of America: Milady Publishing Company.

Kaiser, S.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Macmillan.

Kaiser, S. B. (1997).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Leslie Baumann, *코스메틱 피부과학: 원리 및 임상.* 김석민, 박기범, 배영재, 신현주, 여운철, 이미경, 임성빈, 임이석, 최성우, 한승경, 홍경태, 황선영, 홍란희 역(2004). *코스메틱 피부과학.* 서울: 정담미디어.

Orentreich, N. and V. J. Selmanowitz (1969). "Levels in Biological Functions with Aging." *Transaction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 11, No. 31.

Plummer, J. T. (1974).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Life Style Segmentation." *Journal of Marketing* Vol. 38. Issue 1.

Uitto, J. (1997). "Understanding Premature Skin Aging."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 337, No. 20.

Van Crouch (2002). *Winning 101: Insight and Motivation to Help you Achieve*. Tulsa, Oklahoma: Honor Books.

William, R. H. and C. Wirth (1965). *Lives through the Years*. New York: Atherton Press.

Wright, B. A. (1983). *Physical Disability: A Psychosocial Approach* (2nd ed.). New York: Harper & Row.

Yaar, M. and B. A. Gilchrest (1999). *Aging of the Skin. Fitzpatrick's Dermatology in General Medicine.* (5th ed.). New York: McGraw-Hill.